



디지털 인재 양성... 전주대, AID선도대학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RISE사업단 평생학습지원센터는 교육부의 2025년 재직자 AI·디지털(AID) 집중과정 사업의 'AID 30+ 집중캠프'와 'AID 특음강좌' 사업 운영을 통해 'AID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북 지역 재직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D 특음강좌'는 '로컬 비즈니스 브랜딩 과정'을 중심으로 △AI 시대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 △AI와 함께하는 마케팅 전략 △AI 기반 SNS 브랜딩 등 직무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AID 30+ 집중캠프'는 일반사무·영업·마케팅 등 3개 직무 분야를 중심으로 총 9개 세부 과정이 운영되며, 실습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도를 높였다.

특히 교육 이수자에게는 디지털 배지가 발급되며, 해당 배지는 RPI(선형학업인정제)와 연계돼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습 성과의 공식적 인증과 경력 개발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김재훈 기자



장수소방서, 1분기 우수직원 선정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2026년 1분기 동안 헌신적인 업무 수행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에 기여한 '1분기 우수직원'으로 장계119안전센터 정기봉 소방경(1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최다 득표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기봉 팀장은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하며, 평소 현장에서 보여준 탁월한 전문성과 대원들을 아우르는 소통 능력을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았다.

정 팀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대원들을 이끌며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팀원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현장 지휘는 물론, 평소에도 대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 내 귀감이 되어왔다.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정 팀장에게는 서장 표창과 더불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휴가 1일이 수여되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하나새마을금고, 전통시장서 짜장면 나눔

김제시는 김제하나새마을금고(이사장 조승곤)가 지난 14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교원동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짜장면 나눔 봉사 활동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담긴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이웃 간 온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봉사에는 요촌동 남·여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음식 준비부터 배식, 행사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나눔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여성단체, 나눔문화 확산 '고추장 담그기'

김제시는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4일 여성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위한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지역에서 수확한 품질 좋은 재료들을 선별해 오랜 경험과 전통 비법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고추장을 담갔다. 특히,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전 과정에 세심한 손길을 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과 함께 재도약' 선언

김강주 국립군산대 총장 취임... 학생 중심 교육 혁신 등 3대 비전 제시

국립군산대학교는 15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제10대 총장으로 김강주 박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소설가 황석영 작가를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교직원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환경 변화라는 위기를 언급하며, 이를 대학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명한 운영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생에게 신뢰받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학생 중심 교육 혁신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교육의 질과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몰입 환경 조성하고 대학원 내실화를 통해 성과를 높이며, 산학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립 군산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다시!'라는 슬로건 아래 재정 확충과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중심 국립대학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01면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재단법인 임실군 향우회 제2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재부산임실군 향우회 제13대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서대수 회장을 비롯하여, 재부산 호남향우회 지역별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재부산 임실 향우회, 정기총회·회장 이취임식

재단법인 임실군 향우회는 지난 13일, 부산진구 이리스웨딩홀에서 제2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재부산임실군 향우회 제13대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서대수 회장을 비롯하여, 재부산 호남향우회 지역별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1부 행사에는 시상식, 회장 이·취임식, 축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제11, 12대 회장으로 지난 4년 간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를 이끈 장인수 임의장은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 발전과 고향 입실 발전의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2부 행사는 오랜만에 만난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원, 지역 주민 호남향우회 지역별 임원들이 함께하는 화합행사로 이뤄졌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에서 수확한 쌀의 가치를 담다

남원 '화동원42', 전북자치도 올해의 건배주

남원시는 지역 양조장인 비즈양조의 증류주 '화동원42'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6년 올해의 건배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의 건배주 사업은 전북도가 도내 우수한 전통주를 발굴하고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는 도내 전통주 및 지역특산물 총 17개 제품이 출품되어 맛, 품질, 지역성, 상품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남원의 '화동원42'가 증류주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화동원42'는 남원 쌀과 정제수만을 활용한 쌀 증류액 100% 제품으로, 인공감미료를 전혀 첨가하지 않아 쌀 고유의 은은한 풍미와 깔끔한 목넘김을 자랑한다.

특히 42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의 깊은 향을 섬세하게 살려내 심사위원들로부터 "전북의 기개를 보여주는 고품격 증류주"라는 호평을 받았다.

비즈양조의 이번 성과는 남원시와 전북도가 함께 추진한 지역 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지난 2019년 '전북도 햇살 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2021년 양조장을 준공한 비즈양조는 2023년 지역특산물 면허 취득과 동시에 '화동원42'를 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화동원42를 도 공식 건배주로 지정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열리는 각종 국내외 공식 행사와 만찬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쌀의 가치를 담은 '화동원42'가 전북을 대표하는 술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양조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고품질 전통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미가 깊다. 지난 2019년 '전북도 햇살 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2021년 양조장을 준공한 비즈양조는 2023년 지역특산물 면허 취득과 동시에 '화동원42'를 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화동원42를 도 공식 건배주로 지정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열리는 각종 국내외 공식 행사와 만찬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쌀의 가치를 담은 '화동원42'가 전북을 대표하는 술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양조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고품질 전통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건협 전북지부, 봄맞이 어르신 사랑의 음식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음식 전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14일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배달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환절기 기력 저하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 식당 이용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협 전북지부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우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 세트를 직접 전달했다.

특히 집 안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은 없는지 살펴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오상근 기자

"김제로 유학 왔어요"... 남포마을, 농촌유학으로 '활기'

김제시 성덕면 남포마을이 농촌유학 사업 2년 차를 맞아 대도시 유학생 가족들과 주민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마을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 남포마을에는 서울과 화성 등 대도시에서 온 4가구(13명)가 머물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가족 중 일부가 기간을 연장하고 올해 신규 가족이 추가로 합류하며 도시-농촌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농촌유학 사업 운영을 맡은 드림투게더 사회적협동조합은 시의 지원을 통해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 기초 학습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영어와 문해력 수업 등 맞춤형 활동으로 도시 유학생들의 학습 연속성을 돕고, 이를 매개로 주민들과 교류하며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드림투게더 사회적협동조합은 유학 가족과 주민이 하나 되는 '농촌유학 교류 한마당'을 개최해 입주 환영식과 음식 나눔 등 유대감 형성을 위한 공동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인형극 제작·공연 및 지역 문화기행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며, 생활 밀착형 고충 상담과 정례 간담회를 상시 운영해 유학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인형극 제작·공연 및 지역 문화기행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며, 생활 밀착형 고충 상담과 정례 간담회를 상시 운영해 유학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 한해 풍년농사 기원... 전북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전북농협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현장 일손돕기에 나섰다.

전북농협은 15일 남원농협 본점에서 '2026년 전북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남원 지역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농협 임직원들 비롯해 시너지협의회,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전북대학교와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농촌 현장에서 사과 적화, 육묘판 나르기, 방울토마토 잎따기, 포도 순치기 등 다양한 농작업을 직접 도우며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탰다.

특히 농가소득 향상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이상기온 등의 영향으로 영농철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일손돕기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농협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기관과 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농촌 지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평소 학생식당에서 자주 먹



던 우리 농산물이 농업인들의 많은 땀과 노력으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큰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고 말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올 한 해 지역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이번 영농지원 발대식이 많은 분들이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과 단체,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도 영농철 기간 동안 지속적인 일손돕기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업·농촌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알림

제20회 전국 장애인가요제

- ▲일시: 5월 5일(화), 오전 10시
- ▲장소: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 WBC 복지TV 전북방송
- ▲참가자 접수: 등록장애인 남녀 16세 이상
- 27일 마감(전화, 방문접수 가능)
- ▲문의: 063-286-6678, 010-7304-5665